



〈맨 위〉응원상을 받은 용주사 응원단과 시축하고 있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중간〉제1회 조계종 포교원장배 축구대회에서 예선경기를 하고 있는 용주사와 화엄사.
 〈맨 아래〉(오른쪽 두 번째부터)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포교부장 계성 스님, 포교국장 부명 스님, 화엄사 포교국장 대요 스님,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김석두 사무총장.



제1회 조계종 포교원장배 축구대회

차고 막고 우중전 “우리적 최고”

쏟아지는 장맛비 속에 색색의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잔디 구장을 누빈다. 운동장 주변의 군중들은 팽과리며 장구 북을 연신 울리며 이들을 응원한다. “잘한다~ 동화사” “신홍사 파이팅!”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에 들쭉날쭉을 쏟아 붓던 7월 12일, 전국에서 400여 스님과 신도들이 장거리 빗길을 마다않고 충북 보은종합운동장에 모였다. 저 비가 어디서 오는 걸까? 3m 앞의 사물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성하게 내리는 빗속에 축구경기가 열린 까닭은 무엇일까?

바로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이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전국 포교 원력과 활동가들의 포교역량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제1회 조계종 포교원장배 축구대회’ 참가자들의 열기 때문이다.

경기 시작에 앞서 관계자들은 실내 체육관에서 축구시합이나, 계획대로 비를 맞고서라도 야외

로 경기에 최선을 다할 뿐이었다.

결승전은 설악산 신홍사와 지리산 화엄사 양대 산맥의 맞대결이었다. 그치지 않는 빗속에서 비를 흠뻑 먹은 각 팀원들의 결속력은 범우애로 더욱 촉촉해져갔다.

한마음 한 뜻으로 치러진 대회에서 신홍사는 ‘강원도의 힘’을 보여주며 화엄사를 2대 0으로 물리치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제2교구 승리는 우리끼리’라는 현수막을 내걸며 응원 열정으로 대회의 활력을 불어넣은 용주사는 응원상을 받았다. 수석사는 페어플레이상을, 동화사는 축구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신홍사 신도 조남용씨는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포교부장 계성 스님, 포교국장 부명 스님과 교구본사 포교국장협의회장 대요 스님, 이항래 보은군수, 조계종 체육인들 자연합회 이기홍 회장 등이 참석해 출전 선수들을 격려했다.

입재식, 토너먼트, 준결승, 레크리에이션, 결승전으로 진행된 행사에서 혜총 스님은 “전국 25개 교구본사에서 모두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6개 사찰이 함께하는 첫 대회가 포교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출가, 재가, 일선 포교사단이 혼연일체가 될 때 포교는 힘을 얻게 된다. 본 경기를 통해 포교역량을 결집해 국가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뛰어들라”고 당부했다.

용주사 김명진 사무차장은 “홍분하게 됐다. 선수들과 응원단 모두 열심히 했다. 행동하는 불교를 표방하는 불자로서 다함께 참가하고 즐기면서 부처님께 다가가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빗줄기에도 아랑곳 않고 공만 보며 달리는 선수들은 어려운 환경에도 원력과 신심으로 복전을 일구는 보살과 진배없었다.

과 마음은 하나로 모아졌다. 비웃을 입은 응원단들의 응원막대, 북소리, 징소리, 팽과리 소리는 보은 전역에 울려 퍼졌다. ‘감동하는 불교, 행동하는 불심’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잘~한다 화엄사, 더~잘한다 용주사’라는 따듯한 응원소리는 불국토 건설에 밑거름이 되기에 충분했다.

예선전은 용주사와 화엄사, 신홍사와 월정사, 동화사와 수덕사가 맞붙어 화엄사, 신홍사, 수덕사가 준결승전 진출의 기회를 얻었다. 화엄사는 부전승으로 준결승에 올라갔다.

예선전에서 아쉽게 패한 용주사, 월정사, 동화사는 실내 체육관에서 축구 패자부활전으로 아쉬움을 달렸다. 패자부활전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승부전이었다. 스님, 신도는 점수를 따는 순간 서로의 손을 뜨겁게 움켜쥐었다. 점수를 얻지 못해도 눈빛 교환과 도닥임으로 경기에 최선을 다할 뿐이었다.

결승전은 설악산 신홍사와 지리산 화엄사 양대 산맥의 맞대결이었다. 그치지 않는 빗속에서 비를 흠뻑 먹은 각 팀원들의 결속력은 범우애로 더욱 촉촉해져갔다.

한마음 한 뜻으로 치러진 대회에서 신홍사는 ‘강원도의 힘’을 보여주며 화엄사를 2대 0으로 물리치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제2교구 승리는 우리끼리’라는 현수막을 내걸며 응원 열정으로 대회의 활력을 불어넣은 용주사는 응원상을 받았다. 수석사는 페어플레이상을, 동화사는 축구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신홍사 신도 조남용씨는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포교부장 계성 스님, 포교국장 부명 스님과 교구본사 포교국장협의회장 대요 스님, 이항래 보은군수, 조계종 체육인들 자연합회 이기홍 회장 등이 참석해 출전 선수들을 격려했다.

입재식, 토너먼트, 준결승, 레크리에이션, 결승전으로 진행된 행사에서 혜총 스님은 “전국 25개 교구본사에서 모두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6개 사찰이 함께하는 첫 대회가 포교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출가, 재가, 일선 포교사단이 혼연일체가 될 때 포교는 힘을 얻게 된다. 본 경기를 통해 포교역량을 결집해 국가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뛰어들라”고 당부했다.

용주사 김명진 사무차장은 “홍분하게 됐다. 선수들과 응원단 모두 열심히 했다. 행동하는 불교를 표방하는 불자로서 다함께 참가하고 즐기면서 부처님께 다가가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빗줄기에도 아랑곳 않고 공만 보며 달리는 선수들은 어려운 환경에도 원력과 신심으로 복전을 일구는 보살과 진배없었다.

글=이상연 기자 un82@buddhapia.com
 사진=박재원 기자 wanhollo@hanmail.net

출·재가 축구로 하나돼 소통·화합 신홍사 우승트로피 ‘강원도의 힘’

에서 축구 경기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 설왕설래했다. 하지만 선수단, 응원단들은 비를 맞고서라도 축구는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뜻을 같이 했다. 포교원력을 세우기 전에는 힘을 쏟아 오던 이들의 용맹정진이다. 참가자들은 대회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수중전을 불사했다.

불교계에서 조직력 강화는 오래된 숙제였다. 조직력이 떨어지니 포교역량이 부족한 것은 당연지사.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전국의 수 천 명에 달하는 포교원력과 스님들이 조직화되지 못해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제기됐다.

최근 열렸던 조계종 전국교구본사 포교국장협의회에서도 “스님과 신도간 교류와 소통의 부족은 결국 불교계 화합과 결속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제1회 축구대회에는 제2교구 용주사, 제3교구 신홍사, 제4교구 월정사, 제7교구 수덕사, 제8교구 지리산, 제19교구 화엄사 등 총6팀이 출전했다.

팀원은 각 사찰 스님 4명, 신도 4명, 각 지역포교사단 3명, 총 11명으로 구성됐으며 경기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이 날아들자 공 하나에 참가자들의 몸

불경 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전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복상불소영가천도
 장량장가천도
 식식사용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계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기운이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목염주 / 흑단목염주천주
 크기 : 8mm × 10mm × 12mm 55,000원
 10mm × 10mm × 12mm 65,000원
 12mm × 10mm × 12mm 85,000원
 흑단목염주는 거리가 지형하여 본사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흑단목포대화상향로
 (세) 26 × 16 × 16cm 155,000원
 원인가 125,000원
 예술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판을 마음대로 이루어 주며 일에서 형이 행어저 나와 애벌시에도 사용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기운이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양이 은은하여 아름답으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강현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복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차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돌**이 80°C 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작용시 백색(오장유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격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작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정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 차가운 ◆오심, 구토,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형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들이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해리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속담(최고60°C)보다 높은 고열(80°C 이상)의 원격외선 “열침”이 백색(오장유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은열지않,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들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현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